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미얀마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19년 7월 10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677천 km ² 	인구 5,283만 명 (2018)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685.6억 달러 (2018) 	1인당GDP 1,298 달러 (2018) 	통화단위 Kyat(KT) 	환율(\$기준) 1,429.8 (2018) 

-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인도, 중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5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집권에 힘입어 50여 년 만의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화를 이뤘음.
-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중심국가로, 세계 최하위권의 기업경영여건 등을 개선하고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산림,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인근 국가 대비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을 지니는 등 성장잠재력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5. 5. 16 수교 (북한과는 1975. 5. 16 수교, 1983. 11 단교 후 2007. 4 복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7), 항공운수협정('78), 이중과세방지협정('03), 사증면제협정('11),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공여 협정('93), 무상원조협정('13), 투자보장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760,717	573,174	534,059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의류, 편직물
수 입	458,666	463,336	536,583	의류, 신변잡화, 농산가공품,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425건, 3,338,55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8.2	7.5	5.2	6.3	6.7
소비자물가상승률	5.1	7.3	9.1	4.6	5.9
재정수지/GDP	-1.3	-2.8	-3.5	-2.6	-2.6

자료: IMF, EIU

농업 부문 생산량 증대와 국내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6%대 성장률 지속

- 미얀마는 농업 중심 국가로,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미얀마 경제는 2018년 GDP 기준 서비스업 40.4%, 산업(제조업) 36.3%, 농수산업 23.3%로 구성되어 있음.
- 미얀마 경제는 2015년 8월 대홍수 발생으로 농업 생산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성장세가 위축되었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농업 부문의 회복 지연 및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5.2%까지 하락하였음.
- 그 후 2017년 농업 부문 및 국내소비(2017년 기준 GDP 대비 63.8%) 회복에 힘입어 6.3%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도 성장 추세가 이어져 왔음.
- IMF는 2019년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부동산 가격 조정으로 인한 건설경기 둔화에 따라 2018년 대비 소폭 하락한 6.4%로 추정하였음.
- IMF는 한편으로, 미얀마는 젊은 인구 구성 및 낮은 임금에 따른 봉제산업 수출 활성화, 중국-인도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인 이점의 활용 가능성 등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24년까지 6%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2017년 8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로힝야(Rohingya)족 난민 사태가 EU,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미얀마의 수출기업들이 현재까지 누리던 특혜관세 혜택과 서방으로부터의 원조자금 유입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우려가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어,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통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이클론이나 홍수 등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됨.

2018년 짜트(Kyat)화 약세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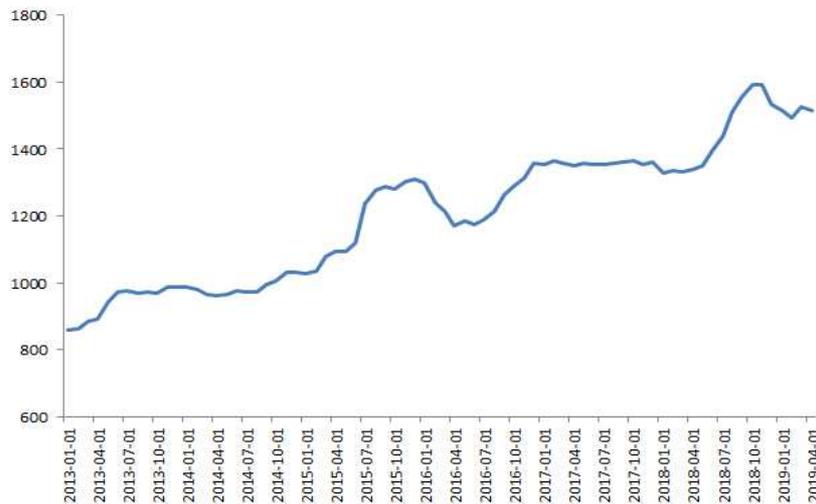
- 2018년 중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두드러진 짜트화 약세(2018년 10월 연초 대비 최대 17% 하락)와 국제유가 상승 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5.9% 상승하였음.

국내경제

- 한편,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미얀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 독립적인 통화정책 권한이 부여된 2013년 이후 짜트화 가치 변동 및 미얀마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2019년 7월 현재까지 10%로 동결됨.

* 연평균 물가상승률(%) : 5.7('13) → 5.1('14) → 7.3('15) → 9.1('16) → 4.6('17) → 5.9('18)

2013년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짜트화 환율



자료 : Bloomberg

- 미얀마 중앙은행은 1948년 4월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최초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재무부의 통제를 받아 왔으며, 2013년 7월 중앙은행법 개정으로 비로소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통화증발을 통해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이 불가피했고,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음.
- IMF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짜트화 가치 안정,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통화증발 억제 노력 등에 힘입어 2024년까지 6% 초반대로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예상

-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GDP 대비 6.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세수 확보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2018년 재정수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GDP 대비 -2.6%를 기록하였음.
- 한편, 향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GDP 대비 -4.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2,129	-2,838	-1,776	-4,504	-4,639
경상수지/GDP	-3.4	-4.5	-2.9	-7.3	-6.8
상 품 수 지	-1,872	-3,815	-3,578	-5,767	-5,875
상 품 수 출	10,026	9,957	9,235	9,811	11,426
상 품 수 입	11,899	13,772	12,812	15,577	17,301
외 환 보 유 액	4,225	4,348	4,616	4,910	5,347
총 외 채	8,830	9,529	12,271	17,925	17,794
총외채잔액/GDP	14.0	15.1	20.3	29.2	26.0
D.S.R.	3.2	3.9	4.4	4.4	4.4

자료: IMF, EIU

상품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추세

-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목은 천연가스(27.0%), 의류(14.0%), 곡물(9.6%) 순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정제유(19.0%), 차량(11.0), 기계류(8.8%) 순임. 2017년 이후 농업 부문 및 봉제산업(의류) 등 제조업 부문이 수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 최근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대는 봉제산업에서 주변국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미얀마의 원가 경쟁력과 전체 수출규모의 약 13%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시 관세 특혜 대우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인프라 확충 및 투자 증대로 인해 2018년 기준 전체 상품수입의 81%를 차지하는 중간재,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입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누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한편, 2018년 기준 총수출 대비 16.3% 수준의 해외원조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일부 보전됨.
- EIU는 상품수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9.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규모는 안정적이거나, FDI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미얀마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전년대비 8.9% 증가한 53.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단기외채잔액의 2.3배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안정적인 상황임.
- 한편,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입이 급증한 결과 2.7개월을 기록하며 최근 5개년 평균(2.8개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2017회계연도 기준 FDI 순유입은 GDP 대비 5.4%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 왔음. 이는 최근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그러나 미얀마와 동일한 OECD 6등급 국가인 캄보디아의 FDI가 GDP 대비 12.6%, 7등급인 라오스가 4.9%임을 감안 시 낮은 수준임.
- IMF는 로힝야 사태 및 서방국과의 갈등 지속에 따른 투자매력 감소, 여전히 미진한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 등을 근거로 FDI 순유입이 점차 줄어 2021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3.8%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양호한 수준이나 모니터링 필요

- 2018년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26.0%, 총수출 대비 105.9%로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최근 총수출 증가 추세에 힘입어 최근 3년 간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임.

* 외채원리금 상환액(억 달러) : 5.8('15) → 6.2('16) → 6.6('17) → 7.3('18)

** D.S.R.(%) : 3.9('15) → 4.4('16) → 4.4('17) → 4.4('18)

- IMF는 2019년 2월 외채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에서 미얀마 당국의 외채관리 역량 개선 등을 근거로 외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음. 동 보고서에서도 외부충격으로 수출과 외국자금 유입이 급감할 경우 외채 관련 지표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점에서 안정적인 FDI 유입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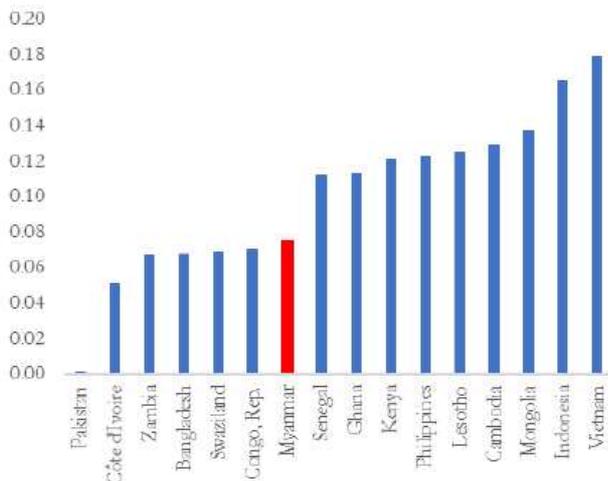
정부의 조세자원 동원(Tax Mobilization) 역량 부족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미얀마 정부의 수입은 국영기업 수입(38.8%)과 중앙정부 수입(61.2%)으로 구성되며, 중앙정부 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65.3%, 32.7%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미얀마의 정부 수입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국영기업의 수익 감소와 천연가스 채굴 수익권 수익 감소 및 세입 부족으로 GDP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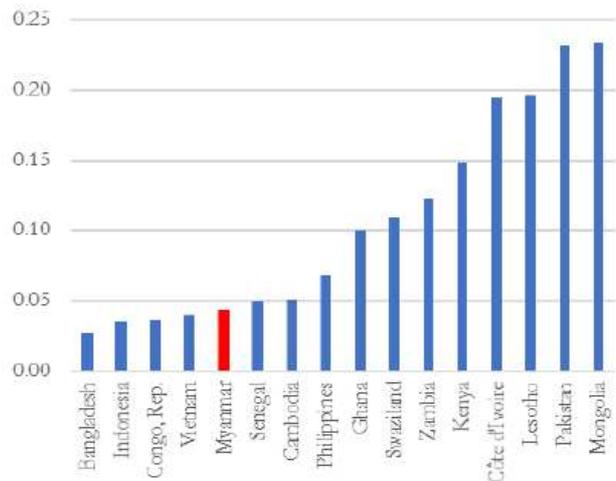
* GDP 대비 정부 수입(%) : 22.5('14) → 21.4('15) → 19.6('16) → 18.3('17) → 17.8('18)

- 한편, 대표적인 조세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공히 25%로, OECD 세율 평균(각각 25%, 42%) 및 글로벌 평균(24%, 31%)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미얀마의 고질적인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세율구조 자체보다는 과도한 면세혜택 제공 또는 만연한 탈세 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GDP 대비 세수 규모와 법정 세율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한 분석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국가별 개인소득세율 대비 세수/GDP



국가별 법인소득세율 대비 세수/GDP



자료 : OECD

세계 최하위 수준의 기업경영여건으로 투자유인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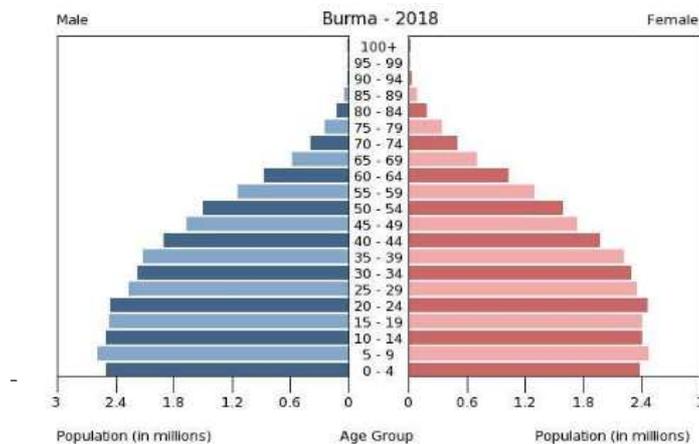
- 미얀마는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이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하였음. 이 순위는 이라크와 동률이며, ASEAN 회원국인 브루나이(55위), 캄보디아(138위), 라오스(154위)보다 낮고 인접한 방글라데시(176위)보다는 높은 수준임.
- 전반적인 기업경영여건이 열위한 가운데 특히 신용 획득(178위), 투자자 보호(185위), 계약 실행(188위)에서 낮은 수준을 보임.
- 또한 세계경제포럼의 2015~16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도 인프라 부문(134위), 금융시장 발전 부문(138위)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열위한 수준을 보이며 종합순위에서 140개국 중 131위를 기록하였음.

성장잠재력

인구구조와 낮은 임금수준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 가능성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얀마의 중위연령은 28.5세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5,562만 명임. 이러한 인구구조와 낮은 임금 수준을 활용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기 유리한 상황임.

미얀마 인구 구조(2018)



자료 : CIA

- 미얀마는 2018년 1월 최저임금 협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30% 인상시켜 2019년 6월 현재 월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2019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비교

(단위: 달러)

구 분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최저임금(월급)	90	95	170	110

자료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및 지리적 이점 활용 가능성 존재

- 미얀마는 산림,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에 중국, 인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국토의 48%가 산림 지역이며, 특히 고급 티크(teak) 목재의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티크의 75%를 생산하고 있음. 아울러 루비, 옥 등 귀금속 매장량도 풍부함.
- 2017년 확인매장량 기준 세계 24위(점유율 0.6%, 원유 환산시 7.5조 배럴)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 중임. 또한 전 세계 매장량 대비 비중은 미미하나, 2018년 기준 1일 11,000배럴 수준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음.
- 또한 인구 및 경제대국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벵골 만을 활용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는 물류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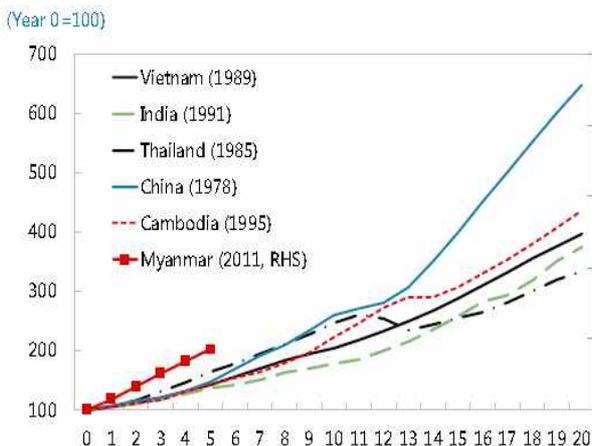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경제개발계획 발표

- 2016년 7월 현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국민 화해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전으로 하는 경제개발 정책방향이 발표됨.
- 정책의 범위가 방대한 반면 실행수단,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필수 육성 분야로 꼽혔던 경공업업을 비롯한 제조업보다는 농업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2018년 2월 미얀마 정부는 국민 화해, 거시경제 관리 강화, 고용창출 등 5대 목표 및 28대 전략 등을 포함한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였음.
- 2016년 발표된 정책방향 대비 금융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제조업 발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대한 범위와 현 정부 잔여 임기 및 정책 역량을 고려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함.

개혁·개방 초기 대비 성과 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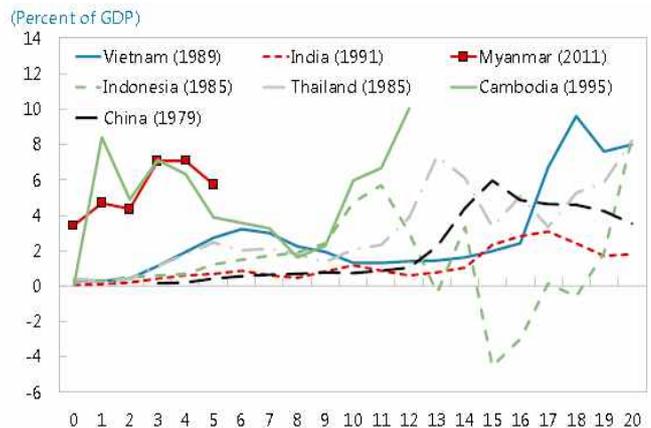
- IMF는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경제 개혁·개방에 대해 동아시아 주요 선발 개도국,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개혁 초기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활발한 FDI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다만, 2016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FDI 유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현 정부 수립 직전 대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오히려 하락하였음(2016년 167위 → 2019년 171위).

개혁·개방 추진 이후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 IMF

개혁·개방 추진 이후 FDI 유입 비교



정치동향

집권당의 정치적 안정성 저하 우려

- 현 정부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각각 상원 224석 중 136석(60.3%), 하원 440석 중 255석(60.0%)을 차지하며 받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미얀마 역사상 최초의 문민정부임.
- 한편, 현 정부의 최근 경제적 성과 및 사회지표 개선이 대중의 기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됨.
- 민주화의 진전과 별개로 2008년 군사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은 군부에 상·하원의원의 25%씩을 할당하고 국방, 내무 등 주요 내각에 대한 임명권을 군 최고사령관에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크게 미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비리와 정부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전국 투표율이 40%를 밑돌았던 2018년 11월 보궐선거 투표에서 NLD는 총 13개의 상·하원 및 지방의회 의석 중 미얀마인의 다수(68%)를 차지하는 바마르족이 주류인 지역에서 7석 중 6석을 획득한 반면, 소수민족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구에서는 총 6석 중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침.
- 2019년 6월 현재 상원 60.3%, 하원 58%를 차지하고 있는 NLD가 2020년 11월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나, 2015년 11월 총선 당시보다 의석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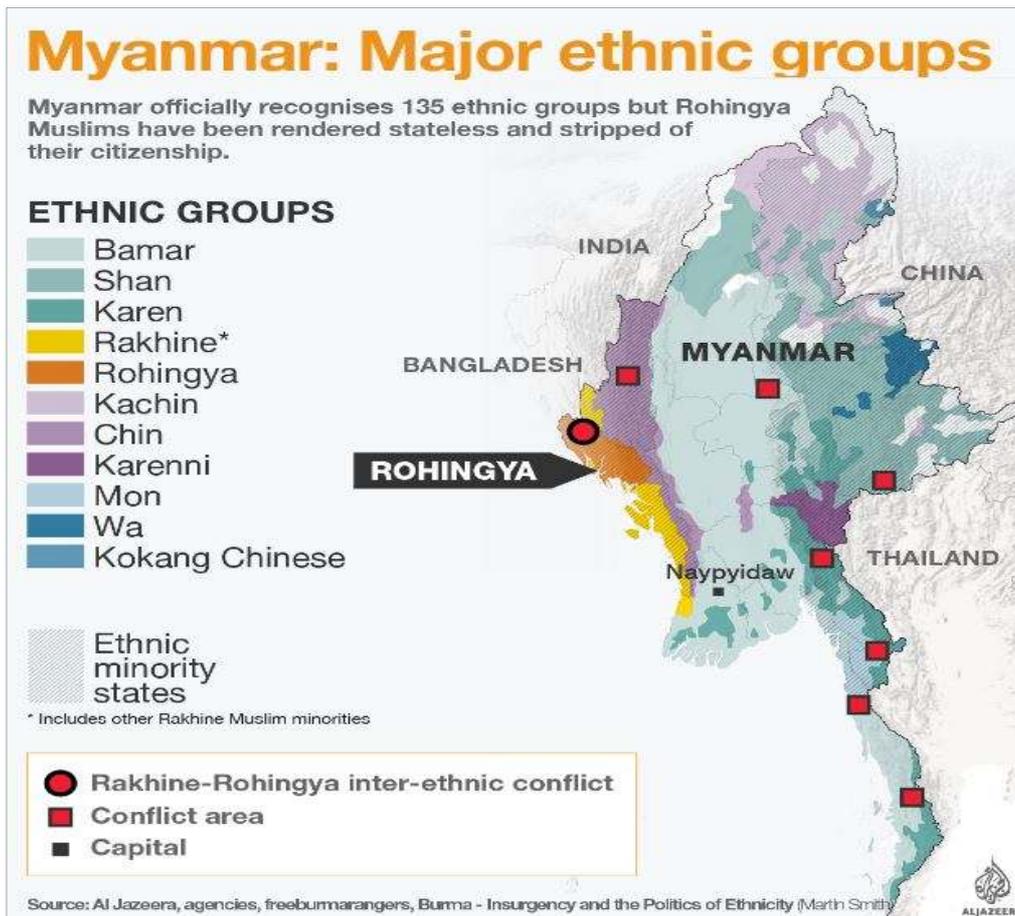
사회동향

민족·종교 갈등으로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황

- 미얀마는 5,283만여 명의 인구가 바마르(Bamar)족 등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임. 종교 분포는 87.9%의 인구가 불교도이며, 일부 지역 기독교(6.2%), 무슬림(4.3%)이 존재함.
-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70여년 간 심각한 민족 및 종교 간 갈등으로 무력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동쪽 방글라데시와의 접경지역인 라카인(Rakine) 주(州)의 무슬림인 로힝야(Rohingya)족 및 북부 카친(Kachin) 주(州)의 기독교도인 카친(Kachin)족 반군과 정부군 간의 유혈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
- 로힝야 사태는 2017년 8월 시작된 로힝야족 반군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대규모 토벌 작전이 인종 청소로 변질되어 수천 명이 살해된 유혈 사태로, 동 과정에서 방화, 고문, 성폭행 등의 범죄가 무자비하게 자행되었으며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인근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음.
- 영국의 식민지배 당시부터 갈등이 존재해 왔던 로힝야족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 온 불법이민자로 보고 약 100여 년 간 미얀마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치안과 교육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차별하면서 분쟁이 지속되었음.
-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로힝야족을 가리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 표현하였고, UN 진상조사단은 로힝야 사태를 '여전히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함.

사회동향

미얀마의 민족 분포도



자료: Aljazeera 기사 (“Myanmar: Major ethnic groups and where they live”, 2017.3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사회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

- 국민화합을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전국적 평화협정 체결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삼고 소수민족과 협상에 나서 왔으나, 협상 중에도 정부군과 소수민족 반군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음.
- 초대 문민정부 수립 이후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수민족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바마르족과 불교도를 자극하여 그들의 일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릴 경우 자칫 군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미얀마 건국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한때 민주화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으나, 2015년 총선 승리 이후 실질적 지도자로서 오히려 군부의 로힝야족 박해를 방관 또는 두둔하며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국제관계

로힝야 사태 해결을 위한 서방의 압박 지속

- EU는 로힝야 사태 발생 이후 관련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유럽 내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으며, 최근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사태 해결 노력이 미진한 점을 근거로 미얀마에 대한 무역 혜택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미얀마 봉제품의 주요 수출대상인 EU는 2011년 개혁·개방 이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교역 분야에서 EBA(Everything But Arms) 무역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EBA는 EU의 일반무역특혜관세(General Scheme of Preferences, GSP) 제도 중 하나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EU로 수출 시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제공함. EU는 GSP 적용 국가의 품목에 대하여 저율 관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며, 그중 최빈국에 대해서는 EBA를 통해 최대 혜택을 제공함.
- 현지 언론은 EU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혜택 철회 시 약 40만 명의 봉제산업 노동자가 실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UN 진상조사단은 2018년 8월 최종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 의도를 품고 대량학살 및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고, UN 인권이사회(UNHCR)는 관련 군인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등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였고,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방글라데시 등에 피신 중인 난민 70여만 명의 송환 일정 확정 및 충분한 진전이 없을 경우 경제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2019년 6월 UN은 미얀마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불이행시 긴급한 인명구조 목적 이외의 다른 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였음.

중국 및 인도와 경제 협력 추진

- 중국은 미얀마 제1의 수출(39%) 및 수입(32%) 상대국으로, 미얀마는 중국에 천연자원 이외에도 쌀 등 농산품을 주로 수출해 왔음.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11월 양국은 미얀마 서부 차우크류 항구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양곤에서 400km 북서쪽에 위치한 차우크류항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미얀마 정부가 채무위기에 대한 불안으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음.
- 2015년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주도의 컨소시엄이 수주한 차우크류항 개발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금액은 70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재원의 85%를 중국 측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인도도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지속 중임.
- 인도의 지원으로 건설된 51.7억 루피(약 820억 원) 규모의 미얀마 시트웨 항만 공사가 2019년 1월 완공되었으며 인도가 운영권을 확보 중인 것으로 판단됨.

외채상환태도

과거 파리클럽 채무탕감 경험 존재

-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54.4%)를 탕감하고, 43억 달러(41.7%)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함.
- 채무탕감액의 25%는 즉시 탕감, 75%는 미얀마가 IMF 프로그램 이행 완료 후 2014년 3월에 탕감하는 조건임.

최근 연체 기록 없으며 기존 연체금 상환태도 양호

- 2019년 3월 31일 기준, 미얀마의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1,041.7백만 달러(단기 86.8백만 달러, 중장기 954.9백만 달러) 중 780.4백만 달러를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연체비율이 74.9%로 높은 편이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연체는 없으며, 장기연체는 모두 채무재조정 기산일(2012년 12월 31일) 이전 채무에 대한 연체임. 또한 현재 연체에 대한 연체배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 연체배상금(백만 달러) : 874.2('18.3월) → 830.3('18.6월) → 814.8('18.9월) → 780.4('19.3월)
- 또한 재조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연체금을 상환 중이며, 2019년 3월말 현재까지 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9.06)	6등급 (2018.06)

OECD는 미얀마에 대해 6등급 유지

- OECD는 높은 경제성장률, 정치 민주화 등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미얀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6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2019년 7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9년 7월 현재 미얀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미얀마는 2018년 농업 부문 생산량 증대와 국내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6%대 경제성장을 지속했음. 2015년 11월 개최된 선거에서 압승하며 미얀마 역사상 최초의 문민정부로 출범한 현 정부는 국민 화해, 거시경제 관리 강화 및 고용창출 등을 주된 목표로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현 정부의 경제개혁 성과는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기능을 정상화하면서도 충분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세 개혁 등 재정 관리 및 FDI 유치 노력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
- 한편,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정치적인 여건 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로힝야족 사태가 지속되어 서방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경우 향후 FDI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 향후 기업경영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정부의 국정운영 역량 개선, 소수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성숙 여부가 미얀마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